

지역 언론의 현주소

총체적 위기를 극복할 열쇳말, ‘지역 밀착형 콘텐츠’

천현진 /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전문위원

미디어 환경의 변화는 지역신문의 위기를 가져왔다. 기술이 새로운 뉴스 유통 방식의 중심이 되면서 지역신문의 뉴스 차별화 전략이 더욱 중요해졌다. 앞으로 지역신문이 지역사회와 지역민에게 어떻게 자리매김해야 할지 역할과 책무에 대해 짚어 봤다. 편집자 주

그동안 논의되어 온 지역신문의 위기는 중앙집권적 사회구조, 지역 매체의 난립과 경쟁 심화, 이종매체 간의 경쟁 심화, 뉴미디어 환경의 대응 부족, 지역 광고 시장의 취약성 등 내외적 요인이 종합적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일반론적인 위기 상황은 지역신문의 경영 악화로 이어지고 경영 악화는 다시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이어져, 결국 저널리즘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지역신문의 위기는 중앙집권적 사회구조, 지역 매체의 난립과 경쟁 심화, 이종매체 간의 경쟁 심화, 뉴미디어 환경의 대응 부족, 지역 광고 시장의 취약성 등 내외적 요인이 종합적으로 작용한다.



이는 전반적인 신문 산업의 위기 속에서 단순히 정기 독자의 감소 및 열독률 하락과 같은 신문 이용 감소 현상에 대한 우려에서 나아가, 중앙집권적 사회구조 부터 지역에 따른 과도한 경쟁, 뉴미디어 환경의 변화, 저널리즘의 역할과 책무 등에 이르기까지 지역신문의 위기를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신문 산업의 현재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실시한 《2018 신문산업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신문 산업 사업체 수(조사 모집단 기준)는 지역종합일간신문의 경우 2009년 기준 115 개사에서 2017년 기준 122개사로 증가했다. 지역종합 주간신문 또한 2009년 기준 452개사에서 2017년 기준 530개사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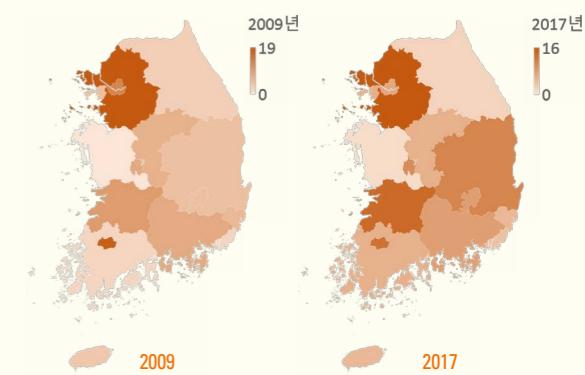
특히 2017년 기준 사업체 수 비율로 전체 산업의 0.3%에 해당하는 전국종합일간신문(11개사)은 전체 신문 산업 매출의 36.4%를 차지하는 반면, 전체 산업의 2.9%에 해당하는 지역종합일간신문(122개사)은 전체 신문 산업 매출의 15.8%의 비중으로 매출 규모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표 2] 또한 전체 신문 산업 종사자의 59.1%가 서울에 집중돼 여전히 전국종합일간신문이 전체 산업을 주도하고 있음을 알

[표 1] 지역종합일간신문 및 지역종합주간신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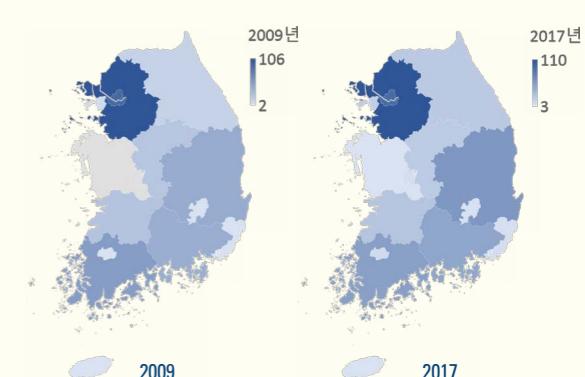
지역종합 일간	2009년		2017년		지역종합 주간	2009년		2017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서울	13	7							
부산	2	4							
대구	5	8							
인천	5	6							
광주	18	13							
대전	8	10							
울산	6	5							
세종	0	1							
경기	19	16							
강원	3	2							
충북	7	6							
충남	0	0							
전북	10	14							
전남	2	6							
경북	5	11							
경남	8	8							
제주도	4	5							
합계	115	122							
					합계	452	530		

<출처 - 2010, 2018 신문산업 실태조사 모집단 수>

[그림] 지역종합일간신문 지역별 분포



[그림] 지역종합주간신문 지역별 분포



<출처 - 2018 신문산업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필자가 재구성>

수 있다.

아울러 이용자들의 뉴스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모바일 인터넷을 통한 뉴스 이용률은 2011년 19.0%에서 2018년 80.8%로 4배 이상 증가한 반면 종이신문은 2011년 44.6%에서 2018년 17.7% 포인트로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포털을 통한 뉴스 이용에 있어 능동적으로 뉴스를 이용하기보다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뉴스 위주로 수동적으로 뉴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¹⁾

미디어 환경의 변화, 지역신문의 위기

지금 이 순간에도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는 미디어 기술과 이용 환경의 변화는 지역신문의 위기와 변화를 새삼 느끼게 한다. 기술이 새로운 뉴스 유통의 활로가 되면서 지역성을 우선으로 두는 지역신문의 뉴스(브랜드) 차별화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다. 하지만 모바일을 통해 대부분의 뉴스가 소비되는 현실에서 각

1) 한국언론진흥재단, 《2018 언론수용자 의식 조사》

[표 2] 2017년 신문 산업 종별 매출액 규모

구분	2009년			2017년			(단위: 백만 원, %)
	총사자 수(1사 평균)	사업자 수(비율)	매출액(비율)	총사자 수(1사 평균)	사업자 수(비율)	매출액(비율)	
전체 신문 산업	33,119(17)	1,989(100.0)	3,515,898(100.0)	42,346(10)	4,225(100.0)	3,769,459(100.0)	
전국종합일간	4,770(434)	11(0.6)	1,394,712(39.7)	4,517(411)	11(0.3)	1,370,586(36.4)	
지역종합일간	7,677(67)	115(5.8)	429,741(12.2)	6,872(56)	122(2.9)	595,066(15.8)	
지역종합주간	2,685(6)	452(22.7)	61,752(1.8)	2,586(5)	529(12.5)	71,463(1.9)	

<출처 - 2018 신문산업 실태조사>

지역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지역신문들은 이용자들 간접 기회가 점점 더 없어지고 있다. 포털이 도입하고 있는 뉴스 배열 알고리즘에 있어 지역 언론 등의 상당수 언론사가 배제되고 있기 때문이다.²⁾

이러한 알고리즘 아래에서는 지역신문이 '1보'를 써도, 서울에 기반을 둔 포털과 콘텐츠 제휴를 맺은 매체가 뒤따라 쓴 기사가 뉴스 검색 결과를 채운다. 로컬 저널리즘의 복원, 풀뿌리 민주주의의 확산을 위해서도 지역에서 저널리즘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지역 언론이 생산한 가치 있고 신뢰

할 만한 기사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노출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일환으로 국회에서도 이용자들의 위치정보 서비스를 이용해 지역 주민들에게 해당 지역의 매체 및 지역 뉴스를 우선적으로 노출해야 한다는 논의도 계속되고 있다.³⁾

페이스북은 이용자 대부분이 플랫폼 내에서 더 많은 지역 뉴스 및 지역사회 정보를 원하는 것을 인식하고 지난 2018년부터 신뢰도, 유익성, 지역 공동체 관련 뉴스를 뉴스피드에 우선 노출되도록 하고 있다.⁴⁾ 영국은 지난해 1월 보고서 <저널리즘을 위한 지속 가능한 미래(THE CAIRNCROSS REVIEW: A sustainable future for journalism)>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의 급속한 성장 속에서 언론사와 플랫폼 간에 공정한 경쟁을 위해 균형 관계를 유지하고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을 다하라는 권고안을 제시했다. 이로써 지속 가능한 저널리즘의 미래를 위해 자유롭고 독립적인 양질의 뉴스를 보호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책임 있는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저널

“

중앙과 지역을 이분해 어느 쪽을 우선할 것인가에 대한 경중의 문제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와 지역민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건강한 지역공동체 회복과 발전을 위한 소통, 순환 채널로서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실천해야 한다.

”

2)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41004>

3) 정동영 의원 등 13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2018.4.26.

4) <http://www.ddaily.co.kr/news/article/?no=165126>

리즘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감시와 견제의 역할로 지역의 '공익 뉴스(public-interest news)'를 위한 새로운 지원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우리나라 2004년 이후 지역신문의 전진한 발전 기반을 조성해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 사회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국가 차원의 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다. 지난 15년 동안 한시적 조항을 지닌 특별법 체제에서 지역신문에 대한 공적 지원을 유지하고 지역신문의 자구 노력이 더해지면서 여러 질문 중 하나는 정책 이행이 입안자들의 비전을 반영했는지 여부다. 즉, 법 제정 당시의 입법 취지가 실현되어 실제 지역신문 사업자와 시장을 긍정적인 변화로 이끌었는가? 법 효력의 유효 기간이 3년 앞으로 다가온 우리에게 또 다시 던지는 질문이다.

다시 주어진 지역신문의 기회

'국가 균형 발전'이 국정 운영의 핵심 사안으로 제시되면서 다시 지역 분권을 위한 견제와 균형이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지역신문이 마주한 도전과 성과에 대해 잠시 멈춰서 비판적인 검토를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이다. 중앙과 지역을 이분해 어느 쪽을 우선할 것인가에 대한 경중의 문제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와 지역민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건강한 지역공동체 회복과 발전을 위한 소통, 순환 채널로서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실천해야 한다. 지역 밀착형 콘텐츠는 로컬 저널리즘의 사명이자, 지역신문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핵심이다. 실천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미래 혁신의 주체로 설 수 없다.

지역신문의 위기는 저널리즘의 위기이자 산업의 위기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지역신문의 위기는 민주

주의의 위기로 이어지고 지역신문의 부재는 지역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⁵⁾ 더구나 지방자치제도의 도입 이후 지역사회 감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 신문이 없다면 지역 정부와 주민의 재정적 부담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Pengjie Gao et al., 2018), 지역의 정치 양극화를 심화시키며(Joshua P Darr et al., 2018), 지역 환경문제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Pamela Campa, 2018).

이러한 지역신문의 중층적인 특성과 기능을 부각시켜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십 년, 이십 년 이후의 미래 정책을 실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지역사회와 지역 문화를 견인하고 지역 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한 대안을 찾는데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지역신문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역신문이 지역 사회와 지역 주민을 담아내야 하는 때이다. ☀

참고문헌

Pengjie Gao, Chang Lee, Dermot Murphy (2018), Financing Dies in Darkness? The Impact of Newspaper Closures on Public Finance. a version of paper was presented at the 7th Municipal Finance Conference,

<https://www.brookings.edu/wp-content/uploads/2018/09/WP44.pdf>

Pamela Campa (2018). Press and leaks: Do newspapers reduce toxic emissions?, Journal of Environmental Economics and Management, 91, pp.184-202

THE CAIRNCROSS REVIEW : A sustainable future for journalism(2019.2.12.),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779882/021919_DCMS_Cairncross_Review_.pdf

Joshua P Darr, Matthew P Hitt, Johanna L Dunaway (2018). Newspaper Closures Polarize Voting Behavior. Journal of Communication, vol 68(6), pp. 1007–1028,

디지털데일리, <페이스북 새 뉴스피드 알고리즘…‘광고주 부담은 늘 수 있다>, 2018.1.26. <http://www.ddaily.co.kr/news/article/?no=165126>

한국기자협회, <지역 뉴스, 포털 메인서 왜 볼 수 없나>, 2017.2.8.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41004>

Loss of local news hinders ability to watchdog government(AP, 2019.3.11.), <https://www.apnews.com/816b31f8571d4b759227e58c6252e99d>